

맘카페엔 엄마들 '정인이 진정서' 봇물

“속이 찢어져” 분노한 엄마들, 진정서 제출 호소

“하늘나라에서 나와 정인이를 지켜줍시다”

양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진정서 700여건 제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엄마들이 '맘카페'를 중심으로 진정서 제출을 주도하는 등 관련자 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6일 수원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새벽부터 '너무 화가 나네요', '정인이 미안해, 진정서 많이 부탁드려요', '정인이 사건, 속이 찢어지고 너무 아파요' 등 관련 글 수십 건이 올라왔다.

이 맘카페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 관련 글이 계속됐다.

지난 2일 한 방송에서 관련 내용이 나온 뒤에는 하루 수십 건의 글이 게시돼 이따금까지 '정인이' 관련 글 200여 건이 쏟아졌다.

관련자 처벌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동의 호소하는 글, '정인이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해달라는 글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입양부모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엄마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죽은 아이를 위한 행동으로 '진정서 보내기'를 택했다.

카페에는 진정서를 보냈다는 인증, 진정서 보내는 방법 설명, 진정서 관

련 질문 등 진정서 동참을 호소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작성자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을 실감했네요. 우리가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편히 눈감지 못했으면 정인이를 지켜줍시다”라며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올렸다.

또 다른 작성자도 “머칠째 (이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조금만 더 관심 갖고 행동하고, 실천해주세요. 더 이상의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고통 속에 지내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길 바랍니다”라며 진정서 작성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대부분에 글에는 “너무 화가 난다”, “열 받아서 잠도 안 온다”, “양부모들 꼭 강한 처벌 받길, 천벌 받을 거다”, “이런 인간에게는 인권이 뭐고 없어야 한다” 등 분노가 가득 담겼다. 다른 지역 맘카페도 상황은 비슷했다.

성남지역의 한 맘카페에도 “우리 뭐라도 행동해요”, “진정서 보내려 가요”, “결국 죽어 나가야 기억해주네요. 정인이 미안해”, “정인이 생각이 중일

제목	작성일자	작성일	조회
정인이 변호사는 고용 못 하나요? [6]		12:56	238
정인이사건 진정서요?? [9]		12:41	449
베이비백스? 시설 공공헌정이 있어요 [5]		12:29	203
[공유] [속보]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 안본다' [15]		11:58	441
정인이 사건 ??? 속이 너무 찢어지고 너무 아파요 ??? [5]		11:45	141
[공유] [속보]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 안본다' [2]		11:42	250
정인이 사망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홀트아동복지회' 철저한 진상조사!! 국민청원합니다. @ [6]		11:30	130
너무 화가 나네요... @ [22]		11:23	660
아기별빛 보다가 눈물이...?? [3]		10:58	506
정인이 미안해 진정서 많이 부탁드려요 [5]		10:40	121
정인이 진정서 오늘까지요? [15]		09:27	215
무제-- [6]		08:59	84
[공유] 정인이 사건 국민청원 6개 있습니다		08:57	157
이런 인간한테 인권이고 뭐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16]		08:20	567
이러다 정신과 발리로 최소 처벌 받을까 걱정이에요 @ [8]		06:01	875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관련 맘카페 게시글

눈물 나고 무기력해요” 등의 글이 매일 올라오고 있다.

이같은 맘카페 주도도 진정서 제출이 호응을 얻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를 엄벌하라는 진정서가 범원에 쇄도하고 있다.

현재 재판부에 접수된 엄벌 탄원 등 진정서는 700여 건에 달한다.

지난달 8일 장씨가 구속기소된 뒤 11일부터 시작된 진정서 접수는 정인이 관련 방송이 나간 뒤인 4일 이후 급증해, 4~6일 접수된 건만 300여 건이 넘는다.

한편, '정인이 사망사건'은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아이 정인이가 숨을 거둔 사건이다. 정인이는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했고, 사망 직전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찢어진 장지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입양 27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의료진은 정인이 몸에 드러난 손상 흔적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306호 중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봉우기자

시내버스 여자승객 앞에서 바지벗고 성추행, 10대 입건

광주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안경찰서는 6일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로 A(19)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5일 오전 9시께 광산구 신창동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바지를 벗는 등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군은 B씨가 자신의 신체 접촉 시도를 거부하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곧바로 B씨가 버스 기사에게 다가가 신고를 부탁했고, A군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군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여수 항구서 60대 추정 남성 숨진 채 발견...해경 수사

전남 여수의 한 항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6분께 여수시 봉산동 국동어항단지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숨진 남성의 연령대를 60대로 보고,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또 목격자 등을 상대로 발견 경위를 조사하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인천서 말다툼 도중 흥기로 형 살해한 동생 자수

인천의 한 도로 인근에서 형과 동생이 말다툼 도중 흥기 한 동생이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동생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도로 인근에서 형인 B(50)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흥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생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5억 투자하면 10억 준다' 부동산 투자사기 50대 징역 3년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면 투자금의 두배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축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A씨는 2017년 2월 제주 시내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토지매매 계약금을 투자하면 총 1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자 대표가 나의 부친이고, 서귀포 성산 지역 등 여러 곳에 토지가 많은 재력가여서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B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 5억원을 1년 사이에 두 배인 10억원으로 돌려준다는 말에 속은 B씨는 선뜻 거금을 건넸다.

그러나 A씨의 약속은 사실과 달랐다. 사업부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8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투자금의 절반이 넘는 약 2억3640만원을 용도와 상관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피해자에게 외국에 건설을 추진 중인 콘도미니엄 여러채를 주겠다고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가로채고,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 광산구 한 어린이집서 아동 방임 의혹...조사 착수

“3세 딸, 자다 깨 무릎 꿇고 빌며 울어...보살핌 없이 방치”

광산구·아동보호전문기관, CCTV 분석·관계자 면담 조사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방임·학대했다는 의혹이 나와 관할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지역 모 어린이집이 원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민원이 최근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광산구 자유계시관 내 게시글에서 ‘만 3세가 된 딸을 16여 개월 전부터 어린이집에 맡겼다. 지난달 4일 밤부터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면서 울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찾아가 최근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해보니 딸

아이만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5분 이상 홀로 놓고 있었다. 또 다른 영상에도 보육교사가 한 칸에서 휴대전화만 보며 딸을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혼자 놀기 좋아하는 아이 성향을 고려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놔뒀다는 답변이 돌아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저는 제 멋대로 (아이를) 내버려 뒀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방임이냐 학대 등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접수한 광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우선 이날 어린이집을 방문, 실내외 CCTV영상을 확보·분석한다. 조만간 학부모·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면담 조사도 진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을 명확히 밝혀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임형택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